

이번 주 시장을 읽는 하나의 문장

#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서막이 오른 한 주, 이란발 지정학 리스크가 그 흥분 위로 찬물을 끼얹었다

SK하이닉스·엔비디아 장기 파트너십 체결과 브로드컴의 AI XPV 플랫폼 출범이 HBM 중심 메모리 밸류체인  
의 구조적 재편을 예고한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칩플레이션'을, UBS는 반도체 장비 시장 2,500억 달러 슈퍼사이클  
진입을 잇달아 선언하며 월가의 AI 인프라 강세 전망이 정점에 달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선언이  
유가를 자극하고 다우를 900포인트 급락시키는 등 지정학 리스크가 시장을 강타했으나, 주 후반 美·이란 종전 MOU  
소식이 긴장을 일부 완화했다. 오라클의 RPO 363% 폭증 어닝서프라이즈는 AI 수요가 마침내 기업 실적으로  
가시화되는 새로운 국면이 열렸음을 확인시켰다.

## Weekly Essay

# 실리콘이 쓰기 시작한 인플레이션, 우리는 준비됐는가

SK하이닉스·엔비디아 장기 파트너십 체결과  
브로드컴의 AI XPV 플랫폼 출범이 HBM 중심 메모리  
밸류체인 구조적 재편을 예고한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칩플레이션'을, UBS는 반도체 장비  
시장 2,500억 달러 슈퍼사이클 진입을 잇달아  
선언하며 월가의 AI 인프라 강세 전망이 정점에  
달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선언이  
유가를 자극하고 다우를 900포인트 급락시키는 등  
지정학 리스크가 시장을 강타했으나, 주 후반 美·이란  
종전 MOU 소식이 긴장을 일부 완화했다. 오라클의  
RPO 363% 폭증 어닝서프라이즈는 AI 수요가 마침내  
기업 실적으로 가시화되는 새로운 국면이 열렸음을  
확인시켰다.

이번 주 리포트는 데일리 리포트에 있었던 이슈를 다시  
나열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날 반복된 주제를 골라,  
왜 시장이 그 뉴스에 반응했는지, 투자자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다음 주에는 어떤 신호를  
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주도 산업, 금리와 유가 같은 매크로 변수,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서로 연결되며 가격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리포트는 단순 뉴스  
목록이 아니라, 다음 주 투자 판단에 바로 연결되는  
해설지에 가깝게 읽히도록 구성했습니다.

01 SK하이닉스·엔비디아, AI 메모리 장기 파트너십 체결

02 브로드컴, 아폴로·블랙스톤과 AI XPV 플랫폼 출범

03 엔비디아 發 메모리 공급난, 2028년까지 확산

04 모건스탠리, AI 發 '칩플레이션' 메모리 슈퍼사이클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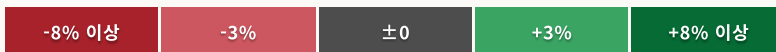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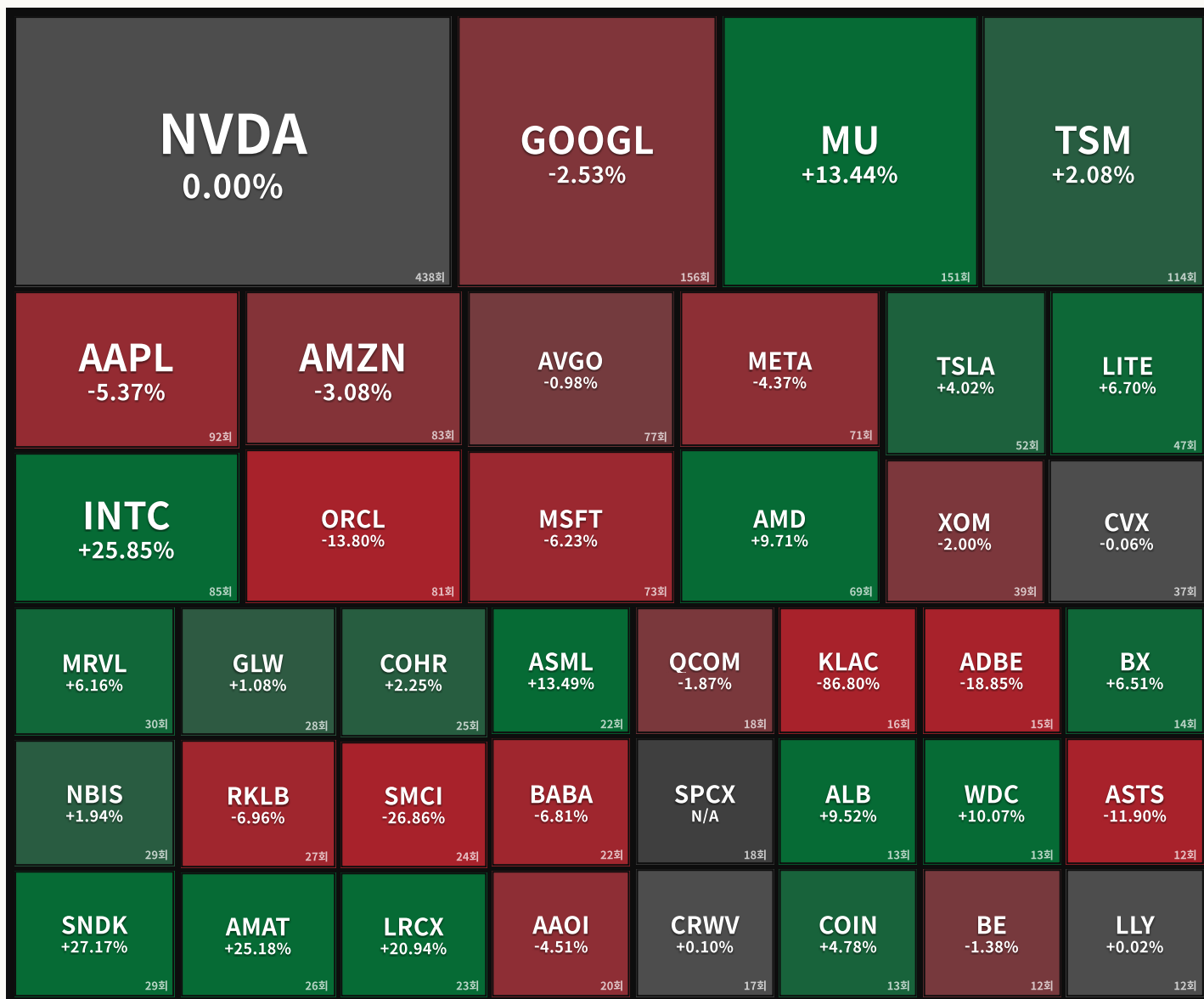
05 UBS, 반도체 슈퍼사이클·장비 2500억달러 전망

Mention Map

# 이번 주 가장 많이 언급된 기업 40

한 주 동안 뉴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상위 40개 기업입니다. 위쪽일수록 언급 빈도가 높고, 칸 크기는 언급 빈도(제공된 스케일), 색상은 주간 주가 흐름을 보여줍니다.

<b>446</b> 주간 언급 기업	<b>40</b> 이 페이지 표시	<b>247</b> 주간 상승	<b>170</b> 주간 하락
------------------------	-----------------------	---------------------	---------------------



읽는 법

색이 진할수록 주간 변동률이 큰 종목입니다. 초록은 주간 상승, 빨강은 주간 하락, 회색은 변동이 작거나 가격 데이터가 부족한 기업입니다.

Mover Map

# 주간 상승률·하락률 상위 20+20

상단은 주간 상승률 상위 20개, 하단은 주간 하락률 상위 20개 기업입니다. 칸 크기는 변동률 절대값에 비례합니다.

<b>446</b> 주간 언급 기업	<b>40</b> 이 페이지 표시	<b>247</b> 주간 상승	<b>170</b> 주간 하락
------------------------	-----------------------	---------------------	---------------------

▲ 상승률 상위 20

<b>TNGX</b> +53.32%		<b>CBRL</b> +39.08%		<b>NUVL</b> +35.67%		<b>KORU</b> +35.12%	
<b>ELVN</b> +32.70%	<b>ASYS</b> +28.71%	<b>AMKR</b> +27.51%		<b>CAVA</b> +25.20%		<b>AMAT</b> +25.18%	
<b>GLXY</b> +32.55%	<b>SOXL</b> +28.71%	<b>SNDK</b> +27.17%		<b>TGTX</b> +23.39%		<b>CRDO</b> +21.12%	
<b>AMC</b> +30.81%	<b>ONTO</b> +27.74%	<b>INTC</b> +25.85%		<b>ACMR</b> +23.13%		<b>LRCX</b> +20.94%	
						<b>ENTG</b> +20.04%	

▼ 하락률 상위 20

<b>KLAC</b> -86.80%		<b>ENRD</b> -37.36%		<b>SOXS</b> -31.24%			
				<b>SMCI</b> -26.86%			
<b>IVVD</b> -24.97%	<b>MNTS</b> -19.88%	<b>RDW</b> -18.08%		<b>CRBU</b> -17.14%		<b>PTC</b> -16.98%	
<b>LAB</b> -22.46%	<b>SAIL</b> -19.78%	<b>EOSE</b> -14.41%		<b>PLUG</b> -13.71%		<b>DAN</b> -12.81%	
<b>WOLF</b> -22.01%	<b>ADBE</b> -18.85%	<b>ORCL</b> -13.80%		<b>ADSK</b> -13.69%		<b>UEC</b> -12.74%	
						<b>WIX</b> -12.34%	

읽는 법

색이 진할수록 주간 변동률이 큰 종목입니다. 초록은 주간 상승, 빨강은 주간 하락, 회색은 변동이 작거나 가격 데이터가 부족한 기업입니다.

-8% 이상	-3%	±0	+3%	+8% 이상
--------	-----	----	-----	--------



## Daily Three

# 브로드컴, 애플로·블랙스톤과 AI XPV 플랫폼 출범

브로드컴이 애플로·블랙스톤과 함께 AI XPV 플랫폼을 출범해 350억 달러 자본과 맞춤형 AI 칩 수요를 결합, 장기 매출 가시성을 확보하며 반도체 섹터를 주도했다. 오픈AI의 SEC 비공개 IPO 신청과 애플의 WWDC 2026 Siri AI 전면 개편 공개가 기술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아파치 격추 발언이 호르

## 04

## 브로드컴, 애플로·블랙스톤과 AI XPV 플랫폼 출범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04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 05

## 애플 WWDC 2026, Siri AI 전면 개편 공개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하드웨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28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 06

## 오픈AI, SEC에 비공개 IPO 신청

소프트웨어 이슈는 모델 경쟁보다 인프라 지출의 방향을 보여줄 때 시장 파급력이 커진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소프트웨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26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 Daily Three

# 모건스탠리, AI發 '칩플레이션' 메모리 슈퍼사이클 경고

모건스탠리가 AI發 '칩플레이션'으로 HBM·DRAM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고 경고한 가운데, 오라클은 4분기 RPO 363% 폭증의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AI 계약의 실적 가시화를 확인했다. 5월 미국 CPI가 예상을 하회하며 금리 인하 기대를 강화했으나, 트럼프의 이란 공격 재개 시사와 반도체 매도세가 겹치며 다우가 900포인트 급락하는 등 단

## 07

반도체 · AI 인프라 수요 · 긍정

## 모건스탠리, AI發 '칩플레이션' 메모리 슈퍼사이클 경고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92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다음 주 볼 점** 좋은 뉴스 뒤에도 가격이 버티는지, 후속 공급망 종목으로 온기가 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 08

소프트웨어 · AI 인프라 수요 · 긍정

## 오라클 4분기 어닝서프라이즈, RPO 363% 폭증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소프트웨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24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다음 주 볼 점** 좋은 뉴스 뒤에도 가격이 버티는지, 후속 공급망 종목으로 온기가 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 09

하드웨어 · AI 플랫폼 자본 사이클 · 긍정

## 오픈AI, 오하이오 10GW 데이터센터 임대 추진

소프트웨어 이슈는 모델 경쟁보다 인프라 지출의 방향을 보여줄 때 시장 파급력이 커진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하드웨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5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다음 주 볼 점** 클라우드 CAPEX, 데이터센터 계약, AI 서비스 매출화 속도가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다.

## Weekly Connection

이날의 3대 뉴스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겉으로는 「모건스탠리, AI發 '칩플레이션' 메모리 슈퍼사이클 경고 / 오라클 4분기 어닝서프라이즈, RPO 363% 폭증 / 오픈AI, 오하이오 10GW 데이터센터 임대 추진」처럼 서로 다른 뉴스였지만, 주간 관점에서는 모두 실적 기대와 자본 지출, 금리 부담이 어떤 순서로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묻는 재료였다. 기대가 우세했지만, 가격이 이미 앞서 움직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날이었다.

## Investor Note

따라서 이 날짜의 뉴스를 읽을 때는 제목의 강도보다 다음 날에도 같은 산업군이 이어서 움직였는지, 관련 종목의 반응이 대형주에만 머물렀는지 아니면 공급망과 주변 업종으로 확산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주간 리포트에서는 이 흐름을 뒤 페이지의 칼럼에서 다시 묶어 투자 판단의 맥락으로 정리했다.

## Daily Three

# 엔비디아發 메모리 공급난, 2028년까지 확산

6월 11일 미 증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선언에 따른 지정화 리스크와 반도체주 급락이 겹치며 하락했다. 엔비디아발 HBM 공급난은 2028년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메모리 제조사의 협상력 강화가 핵심 수혜 포인트로 부각됐으며, 오라클은 OCI·AI 수주 급증에 힘입어 분기 성장을 가속했다.

10

반도체 · AI 인프라 수요 · 긍정

## 엔비디아發 메모리 공급난, 2028년까지 확산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99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음 주 볼 점** 좋은 뉴스 뒤에도 가격이 버티는지, 후속 공급망 증폭으로 온기가 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11

에너지 · 비용과 인플레이션의 변수 · 중립

## 이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선언

에너지 리스크는 기업 이익률과 물가 기대를 동시에 건드린다. 그래서 단일 업종 뉴스처럼 보여도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를 바꿀 수 있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에너지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31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중립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음 주 볼 점** 유가가 다시 튀는지, 운송·항공·소비재처럼 비용 민감 업종이 함께 흔들리는지 봐야 한다.

12

소프트웨어 · AI 인프라 수요 · 중립

## 오라클 FY26 4Q, OCI·AI수주 급증에 성장 가속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소프트웨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30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중립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음 주 볼 점** 좋은 뉴스 뒤에도 가격이 버티는지, 후속 공급망 증폭으로 온기가 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 Weekly Connection

이날의 3대 뉴스는 반도체, 에너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겉으로는 「엔비디아發 메모리 공급난, 2028년까지 확산 / 이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선언 / 오라클 FY26 4Q, OCI·AI수주 급증에 성장 가속」처럼 서로 다른 뉴스였지만, 주간 관점에서는 모두 실적 기대와 자본 지출, 금리 부담이 어떤 순서로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묻는 재료였다. 호재와 확인 과제가 섞였고, 시장은 명확한 결론보다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쪽에 가까웠다.

### Investor Note

따라서 이 날짜의 뉴스를 읽을 때는 제목의 강도보다 다음 날에도 같은 산업군이 이어져 움직였는지, 관련 종목의 반응이 대형주에만 머물렀는지 아니면 공급망과 주변 업종으로 확산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주간 리포트에서는 이 흐름을 뒤 페이지의 칼럼에서 다시 묶어 투자 판단의 맥락으로 정리했다.

## Daily Three

# UBS, 반도체 슈퍼사이클·장비 2500억달러 전망

UBS가 AI 수요 확산을 근거로 반도체 장비 시장 2500억달러 슈퍼사이클 초입을 진단하고, 골드만삭스가 2027년 데이터센터 투자 1.1조달러·AI 토큰 수요 24배 증가를 전망하면서 AI 인프라 밸류체인 전반의 구조적 성장 모멘텀이 재확인됐다. 스페이스X의 750억달러 역대 최대 IPO와 美·이란 종전 MOU가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하는 한편, 케빈 워

## 13 · 반도체

## UBS, 반도체 슈퍼사이클·장비 2500억달러 전망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72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 14 · 산업

## 스페이스X, 750억 달러 역대 최대 IPO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산업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7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 15 · 에너지

## 美·이란 종전 MOU...제재 해제·호르무즈 재개

에너지 리스크는 기업 이익률과 물가 기대를 동시에 건드린다. 그래서 단일 업종 뉴스처럼 보여도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를 바꿀 수 있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에너지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6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중립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 Weekly Conn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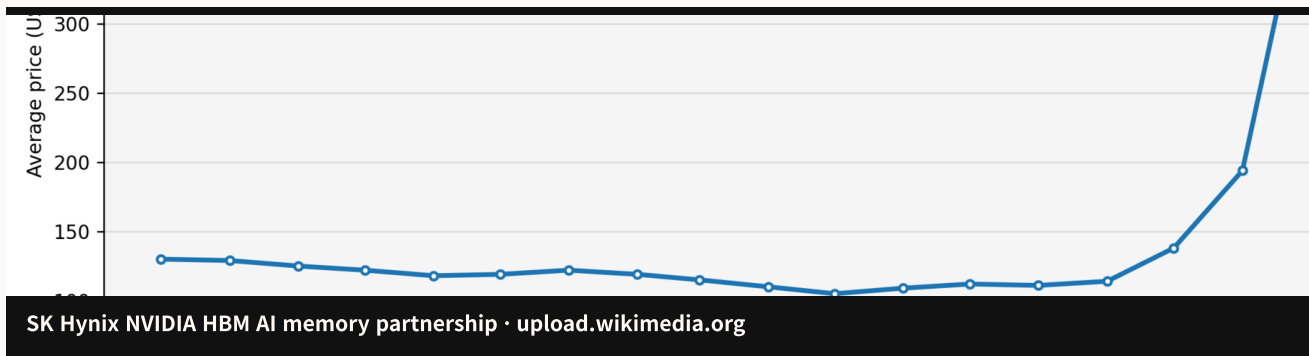
이날의 3대 뉴스는 반도체, 산업,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겉으로는 「UBS, 반도체 슈퍼사이클·장비 2500억달러 전망 / 스페이스X, 750억 달러 역대 최대 IPO / 美·이란 종전 MOU...제재 해제·호르무즈 재개」처럼 서로 다른 뉴스였지만, 주간 관점에서는 모두 실적 기대와 자본 지출, 금리 부담이 어떤 순서로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묻는 재료였다. 기대가 우세했지만, 가격이 이미 앞서 움직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날이었다.

## Investor Note

따라서 이 날짜의 뉴스를 읽을 때는 제목의 강도보다 다음 날에도 같은 산업군이 이어져 움직였는지, 관련 종목의 반응이 대형주에만 머물렀는지 아니면 공급망과 주변 업종으로 확산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주간 리포트에서는 이 흐름을 뒤 페이지의 칼럼에서 다시 묶어 투자 판단의 맥락으로 정리했다.

# 01 SK하이닉스·엔비디아, AI 메모리 장기 파트너십 체결

이번 주 시장이 「SK하이닉스·엔비디아, AI 메모리 장기 파트너십 체결」에 반응한 이유는 뉴스 자체보다 그 뉴스가 바꾼 기대의 위치에 있다.



이번 주 「SK하이닉스·엔비디아, AI 메모리 장기 파트너십 체결」 이슈는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장면이었다. 1개 거래일에 걸쳐 반복됐고, 주간 누적 126건으로 집계됐다. 핵심은 보도량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뉴스가 며칠 동안 가격 기대를 붙잡았다는 점이다.

AI 서버, 메모리 가격,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이 한 흐름으로 묶이는 업종입니다. SK하이닉스 목표가 상향은 HBM 중심의 메모리 프리미엄이 계속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다. 이 이슈는 투자자들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AI 메모리 장기 파트너십 체결이 이날 최대 화두로 부상하며 HBM 중심 고부가 메모리 공급망 주도권 강화 기대를 높였다. 연준의 첫 금리인하 시점이 2027년으로 후퇴하면서 고금리·강달러 장기화... 따라서 다음 주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이 그 기대를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 기대는 단발 뉴스가 아니라 주간 흐름으로 이어졌다. 다음 주에는 좋은 뉴스보다 좋은 뉴스에 대한 가격의 체력을 먼저 봐야 한다.**

## 이번 주 확인된 근거

2026-06-08 · 월 SK하이닉스·엔비디아, AI 메모리 장기 파트너십 체결 —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AI 메모리 장기 파트너십 체결이 이날 최대 화두로 부상하며 HBM 중심 고부가 메모리 공급망 주도권 강화 기대를 높였다. 연준의 첫 금리인하 시점이 2027년으로 후퇴하면서 고금리·강달러 장기화 국면이 확인됐고,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화학 시...

SK하이닉스·엔비디아, AI 메모리 장기 파트너십 체결

# 가격은 이미 얼마나 반영했나

투자 영향은 먼저 반도체 안에서 갈린다. 엔비디아 공급망과 AI 서버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 SK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가 추가로 상향될 여지가 있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는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만, 기대가 과하게 선반영된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실현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뉴스 해석은 긍정적 기대가 우세한 흐름이다. 이때 투자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 반응을 봐야 한다. 같은 호재에도 주가가 밀리면 기대가 이미 높았다는 신호이고, 악재에도 버티면 수급과 실적 신뢰가 남아 있다는 신호다. 반대로 고객사 집중도, 경쟁사 추격, CAPEX 부담이 커지면 프리미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이슈를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볼 때는 HBM 가격, 장기공급계약 언급, 경쟁사의 공급 확대 속도가 핵심 확인 지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도 테마가 쉬어 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여러 지표가 동시에 확인되면 주간 흐름은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 가격 확인

- 호재 직후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면 기대가 아직 살아 있다는 뜻이다.
- 반대로 좋은 뉴스에도 거래량이 줄면 선반영 부담을 의심해야 한다.
- HBM 가격, 장기공급계약 언급, 경쟁사의 공급 확대 속도가 핵심 확인 지표다.

## 02 브로드컴, 아폴로·블랙스톤과 AI XPV 플랫폼 출범

「브로드컴, 아폴로·블랙스톤과 AI XPV 플랫폼 출범」은 이번 주 반도체 밸류에이션 논쟁을 다시 열었다.

이번 주 「브로드컴, 아폴로·블랙스톤과 AI XPV 플랫폼 출범」 이슈는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장면이었다. 1개 거래일에 걸쳐 반복됐고, 주간 누적 104건으로 집계됐다. 핵심은 보도량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뉴스가 며칠 동안 가격 기대를 붙잡았다는 점이다.

AI 서버, 메모리 가격,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이 한 흐름으로 묶이는 업종입니다. 반도체의 기대가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논쟁으로 옮겨갔다. 이 이슈는 투자자들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브로드컴이 아폴로·블랙스톤과 함께 AI XPV 플랫폼을 출범해 350억 달러 자본과 맞춤형 AI 칩 수요를 결합, 장기 매출 가시성을 확보하며 반도체 섹터를 주도했다. 오픈AI의 SEC 비공개 IPO 신청과 애플의 WWDC... 따라서 다음 주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이 그 기대를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 기대는 단발 뉴스가 아니라 주간 흐름으로 이어졌다. 다음 주에는 좋은 뉴스보다 좋은 뉴스에 대한 가격의 체력을 먼저 봐야 한다.

### 이번 주 확인된 근거

2026-06-09 · 화 브로드컴, 아폴로·블랙스톤과 AI XPV 플랫폼 출범 — 브로드컴이 아폴로·블랙스톤과 함께 AI XPV 플랫폼을 출범해 350억 달러 자본과 맞춤형 AI 칩 수요를 결합, 장기 매출 가시성을 확보하며 반도체 섹터를 주도했다. 오픈AI의 SEC 비공개 IPO 신청과 애플의 WWDC 2026 Siri AI 전면 개편 공개가 기...

브로드컴, 아플로·블랙스톤과 AI XPV 플랫폼 출범

# 다음 주 가능한 세 가지 경로

투자 영향은 먼저 반도체 안에서 갈린다. 시장 전체로 보면 성장주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재료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는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만, 기대가 과하게 선반영된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실현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뉴스 해석은 긍정적 기대가 우세한 흐름이다. 이때 투자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 반응을 봐야 한다. 같은 호재에도 주가가 밀리면 기대가 이미 높았다는 신호이고, 악재에도 버티면 공급과 실적 신뢰가 남아 있다는 신호다. 가장 큰 리스크는 기대가 먼저 올라간 뒤 확인 지표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다.

이번 이슈를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볼 때는 실적 코멘트, 목표가 조정, 주문·수요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봐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도 테마가 쉬어 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여러 지표가 동시에 확인되면 주간 흐름은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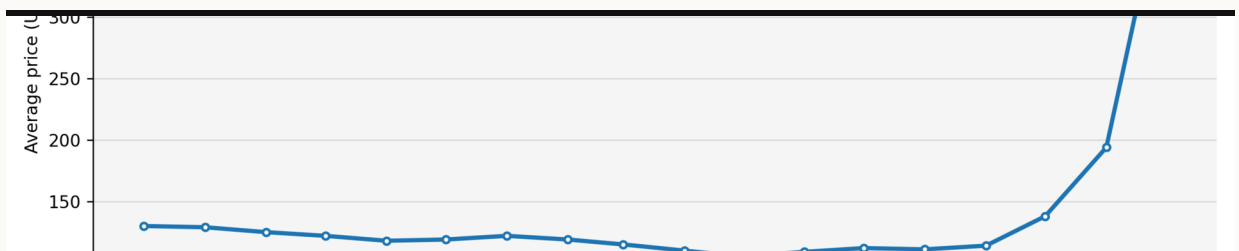
## 시나리오

- 강세 시나리오: 후속 가이드نس와 공급망 뉴스가 같은 방향으로 이어진다.
- 중립 시나리오: 뉴스는 좋지만 주가는 박스권에서 소화 과정을 거친다.
- 약세 시나리오: 금리나 마진 부담이 커지며 밸류에이션이 먼저 눌린다.

# 03 엔비디아發 메모리 공급난, 2028년까지 확산

「엔비디아發 메모리 공급난, 2028년까지 확산」은 이번 주 반도체 밸류에이션 논쟁을 다시 열었다.

이번 주 「엔비디아發 메모리 공급난, 2028년까지 확산」 이슈는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장면이었다. 1개 거래일에 걸쳐 반복됐고, 주간 누적 99건으로 집계됐다. 핵심은 보도량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뉴스가 며칠 동안 가격 기대를 불잡았다는 점이다.



엔비디아 發 메모리 공급난, 2028년까지 확산

## 목표가는 왜 움직였나

투자 영향은 먼저 반도체 안에서 갈린다. 시장 전체로 보면 성장주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재료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는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만, 기대가 과하게 선반영된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실현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뉴스 해석은 긍정적 기대가 우세한 흐름이다. 이때 투자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 반응을 봐야 한다. 같은 호재에도 주가가 밀리면 기대가 이미 높았다는 신호이고, 악재에도 버티면 수급과 실적 신뢰가 남아 있다는 신호다. 가장 큰 리스크는 기대가 먼저 올라간 뒤 확인 지표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다.

이번 이슈를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볼 때는 실적 코멘트, 목표가 조정, 주문·수요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봐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도 테마가 쉬어 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여러 지표가 동시에 확인되면 주간 흐름은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 밸류에이션 점검

- 1 목표가 변화가 매출 추정 상황에서 출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2 단순 멀티플 재조정이면 지속성은 가격 반응에 달려 있다.
- 3 가장 큰 리스크는 기대가 먼저 올라간 뒤 확인 지표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다.

# 04 모건스탠리, AI發 '칩플레이션' 메모리 슈퍼사이클 경고

「모건스탠리, AI發 '칩플레이션' 메모리 슈퍼사이클 경고」는 이번 주 반도체 밸류에이션 논쟁을 다시 열었다.

이번 주 「모건스탠리, AI發 '칩플레이션' 메모리 슈퍼사이클 경고」 이슈는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장면이었다. 1개 거래일에 걸쳐 반복됐고, 주간 누적 92건으로 집계됐다. 핵심은 보도량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뉴스가 며칠 동안 가격 기대를 붙잡았다는 점이다.

AI 서버, 메모리 가격,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이 한 흐름으로 묶이는 업종입니다. 반도체의 기대가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논쟁으로 옮겨갔다. 이 이슈는 투자자들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모건스탠리가 AI發 '칩플레이션'으로 HBM·DRAM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고 경고한 가운데, 오라클은 4분기 RPO 363% 폭증의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AI 계약의 실적 가시화를 확인했다. 5월 미국 CPI가... 따라서 다음 주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이 그 기대를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 기대는 단발 뉴스가 아니라 주간 흐름으로 이어졌다. 다음 주에는 좋은 뉴스보다 좋은 뉴스에 대한 가격의 체력을 먼저 봐야 한다.

## 이번 주 확인된 근거

2026-06-10 · 수 모건스탠리, AI發 '칩플레이션' 메모리 슈퍼사이클 경고 — 모건스탠리가 AI發 '칩플레이션'으로 HBM·DRAM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고 경고한 가운데, 오라클은 4분기 RPO 363% 폭증의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AI 계약의 실적 가시화를 확인했다. 5월 미국 CPI가 예상을 하회하며 금리 인하 기대를 강화했으나,...

모건스탠리, AI發 '칩플레이션' 메모리 슈퍼사이클 경고

## 실행력이 확인돼야 하는 지점

투자 영향은 먼저 반도체 안에서 갈린다. 시장 전체로 보면 성장주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재료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는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만, 기대가 과하게 선반영된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실현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뉴스 해석은 긍정적 기대가 우세한 흐름이다. 이때 투자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 반응을 봐야 한다. 같은 호재에도 주가가 밀리면 기대가 이미 높았다는 신호이고, 악재에도 버티면 공급과 실적 신뢰가 남아 있다는 신호다. 가장 큰 리스크는 기대가 먼저 올라간 뒤 확인 지표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다.

이번 이슈를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볼 때는 실적 코멘트, 목표가 조정, 주문·수요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봐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도 테마가 쉬어 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여러 지표가 동시에 확인되면 주간 흐름은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 실행 확인

- 실제 공급, 고객 승인, 양산 일정이 뉴스의 신뢰도를 결정한다.
- 수율과 마진 코멘트가 함께 좋아져야 주간 흐름이 이어진다.
- 실적 코멘트, 목표가 조정, 주문·수요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봐야 한다.

# 05 UBS, 반도체 슈퍼사이클·장비 2500억달러 전망

이번 주 시장이 「UBS, 반도체 슈퍼사이클·장비 2500억달러 전망」에 반응한 이유는 뉴스 자체보다 그 뉴스가 바꾼 기대의 위치에 있다.

이번 주 「UBS, 반도체 슈퍼사이클·장비 2500억달러 전망」 이슈는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장면이었다. 1개 거래일에 걸쳐 반복됐고, 주간 누적 72건으로 집계됐다. 핵심은 보도량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뉴스가 며칠 동안 가격 기대를 붙잡았다는 점이다.

AI 서버, 메모리 가격,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이 한 흐름으로 묶이는 업종입니다. 반도체의 기대가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논쟁으로 옮겨갔다. 이 이슈는 투자자들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UBS가 AI 수요 확산을 근거로 반도체 장비 시장 2500억달러 슈퍼사이클 초입을 진단하고, 골드만삭스가 2027년 데이터센터 투자 1.1조달러·AI 토큰 수요 24배 증가를 전망하면서 AI 인프라 밸류체인 전반의 구조적... 따라서 다음 주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이 그 기대를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 기대는 단발 뉴스가 아니라 주간 흐름으로 이어졌다. 다음 주에는 좋은 뉴스보다 좋은 뉴스에 대한 가격의 체력을 먼저 봐야 한다.

## 이번 주 확인된 근거

2026-06-12 · 금 UBS, 반도체 슈퍼사이클·장비 2500억달러 전망 — UBS가 AI 수요 확산을 근거로 반도체 장비 시장 2500억달러 슈퍼사이클 초입을 진단하고, 골드만삭스가 2027년 데이터센터 투자 1.1조달러·AI 토큰 수요 24배 증가를 전망하면서 AI 인프라 밸류체인 전반의 구조적 성장 모멘텀이 재확인됐다. 스페이스X의 75...

UBS, 반도체 슈퍼사이클·장비 2500억달러 전망

# 공급망은 어디까지 따라오나

투자 영향은 먼저 반도체 안에서 갈린다. 시장 전체로 보면 성장주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재료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는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만, 기대가 과하게 선반영된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실현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뉴스 해석은 긍정적 기대가 우세한 흐름이다. 이때 투자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 반응을 봐야 한다. 같은 호재에도 주가가 밀리면 기대가 이미 높았다는 신호이고, 악재에도 버티면 수급과 실적 신뢰가 남아 있다는 신호다. 가장 큰 리스크는 기대가 먼저 올라간 뒤 확인 지표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다.

이번 이슈를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볼 때는 실적 코멘트, 목표가 조정, 주문·수요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봐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도 테마가 쉬어 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여러 지표가 동시에 확인되면 주간 흐름은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 공급망 확인

- AI 서버 투자 확대가 HBM과 패키징 병목을 더 자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대형주뿐 아니라 후발 공급망까지 온기가 퍼지는지가 중요하다.
- 가장 큰 리스크는 기대가 먼저 올라간 뒤 확인 지표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다.

## Closing Essay

#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서막이 오른 한 주, 이란발 지정학 리스크가 그 흥분 위로 찬물을 끼얹었다

SK하이닉스·엔비디아 장기 파트너십 체결과 브로드컴의 AI XPV 플랫폼 출범이 HBM 중심 메모리 밸류체인 구조적 재편을 예고한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칩플레이션'을, UBS는 반도체 장비 시장 2,500억 달러 슈퍼사이클 진입을 잇달아 선언하며 월가의 AI 인프라 강세 전망이 정점에 달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선언이 유가를 자극하고 다우를 900포인트 급락시키는 등 지정학 리스크가 시장을 강타했으나, 주 후반 美·이란 종전 MOU 소식이 긴장을 일부 완화했다. 오라클의 RPO 363% 폭증 어닝서프라이즈는 AI 수요가 마침내 기업 실적으로 가시화되는 새로운 국면이 열렸음을 확인시켰다.

**가장 반복된 주제 · SK하이닉스·엔비디아, AI 메모리 장기 파트너십 체결** 여러 날짜의 데일리 리포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이슈입니다. 단기 뉴스보다 주간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산업 · 반도체** 기사 수가 많다는 의미보다, 한 주 동안 투자자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문 영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 체크 · 실적, 가이던스, 금리·유가 변수** 이번 주에 형성된 기대가 다음 주 가격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부담 요인이 다시 커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